

韓國에서의 在日朝鮮人史 研究

金仁德

1. 머리말

植民地時代 民族運動은 다양한 運動勢力이 參加해 持續的으로 展開되었다. 日帝의 가혹한 植民 統治 아래에서 朝鮮의 勞働者·農民과 靑年, 學生들은 民族의 獨立과 階級的 解放을 위해 어느 곳에서든지 鬪爭을 遂行했다. 이러한 植民地時代 民族運動史는 韓國史의 一部이고, 이 韓國史는 韓半島뿐만 아니라 朝鮮 民族이 살던 어느 곳이든지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中國, 沿海洲, 美洲地域의 民族運動史가 우리의 歷史인 것처럼, 日本地域의 民族運動史도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歷史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本地域의 朝鮮人의 歷史에 대해서는 等閑視해 왔다.

最近에 出刊되어 韓國의 中學校¹⁾와 高等學校²⁾ 學生이 배우고 있는 國史教科書에는 在日朝鮮人의 歷史라고 할만한 내용이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다. 在日한 우리 先祖와 關聯한 內容으로는 2·8 獨立宣言, 強制連行, 移民, 李奉昌의 義擧 정도이다. 檢定을 通過한 4個 出版社의 高等學校의 近·現代史 教科書도 軍慰安婦 問題, 2·8獨立宣言, 李奉昌義擧, 日本 移住, 關東大虐殺 等を 주로 다루고 있고, 社會主義 思想의 誘入 通路, 新幹會 東京支會 關聯 文書, 勞働者狀況, 人口狀況, 金社燮 義擧 등이 個別的으로 敍述되어 있다.³⁾

筆者는 왜 日本地域의 韓國史가 疏外되었는지 自責하면서, 韓國의 在日朝鮮人史(問題)에 대한 研究를 檢討하여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一助하고자 한다. 在日朝鮮人史를 研究하는 專門 學會⁴⁾도 만들어진 以上, 이제는 韓國史에서도 결코 無視해서는 안 되는 主題가 바로 在日朝鮮人史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그만큼의 成果를

내야만 하는 宿題도 안고 있다. 중요한 것은 歷史的 事實의 復原이라고 생각한다. 事實의 復原이 窮極的인 目標은 아니지만, 우선 在日朝鮮人 民族運動史 研究에서는 偏頗的인 歷史 解釋에 대해 責任있는 批判을 할 수 있는 基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韓國內의 研究와 日本內의 研究史가 整理된 일⁵⁾이 있기 때문에 筆者는 最近 韓國內의 研究成果를 把握 하겠다. 勿論 資料集이 國內에서 復刊되거나 最近에는 새롭게 整理되어 刊行되어서⁶⁾, 研究基盤이 조금이나마 造成되기 始作했다.

本稿에서는 먼저 日本에서의 研究現況을 살펴보고, 1970年代 以後 韓國 歷史學系의 在日朝鮮人史에 대한 研究를 概觀하겠다. 文學, 社會學, 政治學 等の 研究成果도 없지는 않으나, 特히 필자가 1990年代 以後 歷史學系의 成果에 注目하는 이유는 가장 많은 結果物을 내고 있는 學問領域이 歷史學 分野라고 생각해서이다.

2. 既存 研究의 現況

1) 日本에서의 研究 現況

解放 以前の 在日朝鮮人(運動)에 대한 研究는 在日朝鮮人의 現存的 問題와 直·間接的인 關聯 아래 持續되었다. 물론 植民地時代에 있어서도 在日朝鮮人에 대한 研究가 없지는 않았다. 주로 日帝는 治安對策과 下層民의 問題, 勞務對策, 勞動力 收給의 問題에서 出發하여 在日朝鮮人에 대해 關心을 갖고 있었다.

戰後에 와서는 研究의 主體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 性格도 變化되었다. 1945年 直後는 在日朝鮮人 問題에 대한 綜合的이고 體系的인 研究가 대단히 적었다. 本格的인 研究는 在日朝鮮人 運動에서 運動路線의 轉換을 가져온 1955年 5월 南日外相의 聲明이 나온 뒤이다. 以後 在日朝鮮人運動의 地形이 急變하고 路線이 轉換되면서, 在日朝鮮人 運動史에 대한 研究도 本格的으로 進행되었다. 그 첫 成果가 林光澈의 「在日朝鮮人問題」(『歷史學研究』(特輯「朝鮮史의 諸問題」), 1953.)이다.

1950年代以後 在日朝鮮人 問題와 在日朝鮮人の 運動에 대해서는 生活(實態)史, 運動史, 強制連行史 領域에서 研究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研究는 在日朝鮮人と 일부의 日本人 社會運動 研究者, 그리고 韓國內 研究者에 의해 수행되었다. 整理된 形態의 成果들은 林光澈·姜在彦·朴在一, 朴慶植 等に 의해 提出되었다. 주로 渡日과 朝鮮人の 狀態에 초점을 맞춘 이 成果들은 研究의 基盤을 다진 점에 留意해야 한다. 특히 1957년에 姜在彦의 「朝鮮人運動」, 朴慶植의 「日本帝國主義下における在日朝鮮運動」은 體系的인 在日朝鮮人 運動에 대한 本格的인 論文이다.

1960年代에 들어서는 日本史 研究의 蓄積과 史料의 發掘, 資料 蒐集이 注目된다. 姜德相·琴重洞 編『現代史料』(6)(關東大震災と朝鮮人)(みすず書房, 1963.)과 朴慶植의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未來社, 1965.)을 주요 成果로 들 수 있다. 朴慶植의 研究成果는 強制連行 研究의 土臺를 마련한 매우 重要한 결과물이다.

1970年代는 研究對象과 時期, 研究者가 多樣化된 때였다. 그것은 日本史 研究에서 多様な 研究 主題가 선정되는 분위기에 힘입어 在日朝鮮人 問題에 대해 日本人 研究者들이 關心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研究對象도 強制連行과 生活實態에서 抵抗史에 대해 주제가 擴大되어 갔다. 이 時期에는 在日朝鮮人 運動史 研究에 대한 代表的인 成果物이 出刊되었다. 그것은 朴慶植과 岩村登志夫의 成果이다.⁷⁾ 이 成果物들은 그 동안 지속해서 해온 研究를 묶어 單行本으로 公刊한 것인데, 研究의 地形을 한단계 올려 놓았다. 이로 인해 在日運動史에 대한 概觀이 可能하게 되었다.

本格的으로 資料集도 1970年代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5)(1975~76, 三一書房.)은 그 代表的인 成果이다. 그리고 小澤有作 編『近代民衆の記録』(10)(在日朝鮮人)(新人物往來社, 1978.)도 出刊되었다. 1970年代의 本格的인 研究는 在日朝鮮人 社會 內의 分立과 無關하지 않은데, 1976年 在日朝鮮人 運動史研究會가 結成되었다.

이 時期 研究의 또 하나의 경향은 地域·時期·個別 團體에 대

한 實證 研究가 本格化되어 兵庫縣·奈良縣 그리고 日本海地域에 대한 研究가 單行本으로 刊行된 事實을 들 수 있다.⁸⁾ 그리고 神奈川, 和歌山, 山梨, 名古屋, 京都, 大阪, 新潟 等に 대해서도 勞動 運動을 中心으로 한 地域 研究가 蓄積되었다. 또한 植民地時代 在 日朝鮮人史 研究에서 가장 優先되어 온 主題인 強制連行에 대해서는 많은 研究者와 成果物이 量産되어 量과 質적으로 豊富해졌다.⁹⁾

1980年代 以後 日本에서의 研究는 社會史的 研究 風土가 強化되면서, 在日朝鮮人運動史 研究에서도 社會史的인 接近이 試圖되었다. 이것은 주로 日本人 研究者에 의해 進行되었다. 樋口雄一의 경우 社會史領域을 擴張해 支配政策과 關聯해 『協和會-戰時下在日朝鮮人統制組織の研究-』(社會評論社, 1989.)를 내놓아, 協和會 組織의 活動과 實態를 體系化시켰다. 以後에도 最近까지 樋口雄一은 成果를 내고 있는데, 協和會와 關聯해서는 地域事例 研究와 人物 研究가 要求되고 있다.

1990年代에는 軍慰安婦, 強制連行, 關東大地震 問題 그리고 多様な 視覺의 研究가 나오고 있다. 軍慰安婦를 다룬 鈴木裕子の 『朝鮮人從軍慰安婦』, 朴壽南이 편집한 『アリランのうた』(靑木書店, 1991.)가 發刊되었다. 1990年代 前半期の 在日朝鮮人(運動)史 研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과가 外村大의 글이다.¹⁰⁾ 外村大는 다양한 研究와 함께 社會史的인 視覺에서 解放後 50年 동안의 研究史를 整理했다. 그는 既存 研究의 問題點을 다음과 같이 指摘했다. 1) 總體的 視覺의 不在, 2) 社會 集團으로서의 在日朝鮮人 社會 形成의 實體와 日本人과의 關係 把握의 問題, 3) 斷絶된 時期別 研究의 傾向性 等.

1980-90年代에는 資料集, 回顧錄, 自敘傳이 整理되어, 資料의 限界를 克服하여 研究에 貢獻했다. 資料集으로 刊行된 朴慶植의 『朝鮮問題資料叢書』(1-15), 『特高關係資料集成』(1-5)은 在日朝鮮人 團體, 組織에 대한 雜誌와 文件이 整理되어 있다. 林えいだ이가 監修하고 責任 編輯한 『戰時外國人強制連行關係資料集』(4)(明石書店, 1991.), 長澤秀가 編輯한 『戰時下朝鮮人中國人聯合軍俘虜

強制連行資料集』(綠蔭書店, 1991.)이 나왔다. 協和會에 대해서는樋口雄一이編輯한『協和會關係資料集』(5)(綠蔭書店, 1992, 1993.)이 있다. 그리고 關東大地震에 관한資料 모음으로 琴秉洞이編輯한『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問題關係史料』(I)(朝鮮人虐殺關聯兒童證言史料), (II)(朝鮮人虐殺關聯官廳史料), (III)(朝鮮人虐殺に關する知識人の反應)(1)(2)(綠蔭書房, 1989, 1991, 1996.)이 나왔다. 回顧錄은 代表的인 것으로 張斗植, 高峻石, 金達壽, 朴慶植, 金鐘在 等の 것이 있다.

2) 最近 日本에서의 動向(1998年 以後)

最近의 研究에서 우선 注目되는 點은, 以前 보다 많은 單行本이 刊行되고, 韓國人 留學生들에 의해 研究成果가 量産되고 있는 點이다. 그리고 젊은 研究者들에 의해 在日朝鮮人研究會가 새롭게 組織되어, 既存의 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會와 다른 方向에서 研究會를 進行하고 있는 事實이다.

日本쪽에서 나온 最近의 單行本을 보면, 다음과 같다.

- 『韓人日本移民社會經濟史 戰前編』(河明生, 明石書店, 1997.)
- 『在日朝鮮人の「世界」と「帝國」國家』(西成田豊, 東京大學出版會, 1997.)
- 『在日コリアン百年史』(金贊汀, 三吳館, 1997.)
- 『越境する民-近代大阪の朝鮮人史研究』(杉原達, 新幹社, 1998.)
- 『20世紀を生きた朝鮮人』(林哲 外編, 大和書房, 1998.)
- 『兵庫朝鮮人勞動運動史8・15解放前』(堀内稔, むくげの會, 1998.)
- 『不逞者』(宮崎學, 角川春樹事務所, 1998.)
- 『『韓國併合』直後の在日朝鮮人・中國人』(木村健二 外, 明石書店, 1998.)
- 『戰時下朝鮮の農民生活誌 1939-1945』(樋口雄一, 社會評論社, 1998.)

河明生の 『韓人日本移民社會經濟史 戰前編』은 從來의 朝鮮人 勞働者라는 表現 代身 ‘韓人日本移民’ 이라는 用語를 쓰고 있는 冊으로, 在日朝鮮人 勞働者의 低賃金 勞動力으로서의 適應의 行動 特性을 밝히고 있다.

특히 河明生은 朝鮮 農民의 渡日 原因과 過程을 舉論할 때, 朝鮮의 勞働市場에서 中國人 勞働者와의 競合에서 就勞의 機會가 줄었다고 했다. 그리고 就勞의 경우, 中小零細工場의 初期 渡日 朝鮮人의 先驅的 就勞 以後에, 地緣에 基礎한 個人紹介로 本格的인 就勞가 시작되었고, 部落民의 社會運動의 高揚에 따라 朝鮮人의 就勞의 機會가 擴大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때는 朝鮮人 勞働者의 日本 勞働市場에서의 優秀性を 指摘하고 있다. 아울러 大阪地域의 朝鮮人 勞働力의 需要創出 構造를 分析하여, 메리야스, 자전거, 硝子, 셀룰로이드工業에 있어서의 朝鮮人 勞働者의 存在形態를 言及하고 있다. 그러나 이 冊은 題目과 달리 工場勞働者의 境遇만 限定한 分析을 試圖했고, 大阪을 ‘典型的 移民地’로 上程하여 朝鮮人 勞働者의 狀態를 敍述한 아쉬움이 있다.

西成田豊의 『在日朝鮮人の「世界」と「帝國」國家』는 最近 日本에서 나온 在日朝鮮人 關聯 研究書 가운데 가장 注目받은 冊으로, 日本內 在日朝鮮人史 關聯 研究者들에 의해 많은 書評이 나와 있다.

그는 日立鑛山의 어려서의 經驗과 韓國人 留學生들과의 만남에서 在日朝鮮人에 대해 關心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英國에서의 研究가 그의 在日朝鮮人에 對한 認識의 틀을 갖게 했고, 後述할 와이너의 冊이 示唆點을 주지 않았을까 推測해 본다. 西成田豊는 1910年代부터 敗戰 後를 對象으로 하여, 既存의 各種 資料와 個人的으로 蒐集한 資料를 통해 總體的인 認識을 試圖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在日朝鮮人의 問題를 東아시아地域 全體의 勞動力 移動이라고 하는 보다 廣範圍한 構造 속에서 살펴보려고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冊은 새롭고 獨創的인 內容보다는 既存의 研究를 日本帝國主義 속의 在日朝鮮人이라는 틀 속에서 그리고 있다.

따라서 個別的인 큰 主題들을 한번에 敘述하려는 무모함을 보이고 있다.

『『韓國併合』直後の在日朝鮮人・中國人』은 『『韓國併合』前の在日朝鮮人』의 姉妹編的인 性格의 冊으로, 1910年代 在日朝鮮人의 職業, 年齡構成 등을 밝혀내고 있기 때문에, 1920年代와 比較의 示唆點을 提示하고 있다. 이 冊은 九州와 山口, 두 地域의 事例를 普遍化시키려고 한 限界와 함께 植民地支配의 本質的인 問題에 대해 注目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越境する民-近代大阪の朝鮮人史研究』은 杉原達の 既存의 論文을 모은 것이고, 金贊汀의 『在日コリアン百年史』는 在日朝鮮人史 全體를 다룬 概說書이다. 아울러 堀内稔의 『兵庫朝鮮人勞動運動史 8・15解放前』은 地域의 在日朝鮮人의 勞動運動史로 注目되는 成果이다. 『20世紀を生きた朝鮮人』과 『不逞者』에서는 각각 金天海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20世紀を生きた朝鮮人』속의 박향구의 글은 주로 朝連 時期의 金天海에 注目한 論文이다. 그리고 渡日 以前 朝鮮 農民의 實態에 注目한 『戰時下朝鮮の農民生活誌 1939-1945』가 있다. 여기에서 樋口雄一은 渡日 在日朝鮮人의 朝鮮內의 存在形態를 現場 踏査를 土臺로 하여 敘述하고 있다.

未刊行 博士學位論文으로는 金廣烈의 「戰間期日本における定住朝鮮人の形成過程」(一橋大學 博士學位論文, 1997.) 朴己煥의 「近代日韓文化交流史研究-韓國人の日本留學-」(大阪大學 博士學位論文, 1998.) 등이 있다.

金廣烈은 先學의 研究에 基礎하여, 戰前의 朝鮮人의 渡日의 時期를 誘致期(1910-1919), 抑制期(1920-1938), 集團의 強制勞務動員期(1939-1945)로 區分하고, 渡日 原因을 朝鮮內의 劣惡한 就職環境에서 찾고 있다. 이와 함께 渡日規制政策과 渡日한 朝鮮人의 狀態에 對해 밝히고 있는데, 第1次 世界大戰 後부터 시작된 渡日規制는 基本的으로 旅費 以外의 餘裕 돈이 있거나, 就職이 確實하며, 身元이 分明해야 한다는 條件을 내걸고, 이를 滿足하는 者에

게만 渡日을 許可했다는 通說을 整理했다. 그리고 規制는 몇 번에 걸쳐 追加, 強化되었으며, 1930年代 中盤에는 日本政府 方針으로 總力的인 渡日抑制體制가 確立되었다고 한다.

또한 職場을 求하기 위해 渡日한 朝鮮人は 南部 朝鮮의 적어도 最下層이 아닌 사람들¹¹⁾로 親戚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 日本行을 選擇했고, 日本에 가서는 土建勞動者, 日傭勞動者, 各種 職工, 鑛夫 등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930年代에 들어서는 零細商業과 雜業 勞動者가 加勢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渡日한 朝鮮人は 勞動生活과 居住가 困窮했는데, 住居, 求職, 生活扶助 등은 地緣과 血緣을 通해 解決되었다.

朴己煥은 1881년부터 1919년까지의 渡日留學生의 모습을 整理하고 있는데, 1881년부터 1903년까지의 留學은 官費留學이 中心이었다면서, 主로 軍事, 技術, 制度를 배우는 것이 主였다고 한다. 1904년부터의 留學은 私費留學이 中心이었고, 全體의 85%가 東京에 留學했으며, 折半 以上이 政治, 法律, 經濟, 實業 등의 專門教育을 받은 하이 레벨의 留學이었다고 한다. 특히 이 時期의 留學生은 民族意識이 강해, 日本 官憲은 ‘民族獨立運動의 저수지’ 라고 불 정도였다고 했다.

이와 함께 2000年 以後에는 地域別 事例研究가 보다 豊富해지고, 運動史 속의 個別 事例 研究도 進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許光茂는 方面委員會 問題¹²⁾를, 尹明淑은 強制連行期의 女性勞動力 動員과 關聯해서, 金太基는 解放 後 在日朝鮮人政策¹³⁾을, 南基正은 韓國戰爭期의 在日朝鮮人問題,¹⁴⁾ 金基旺은 1920年代 留學生 問題¹⁵⁾ 등을 研究하여 博士學位를 取得했다.

한편 在日朝鮮人史를 概說한 英語圈의 冊들이 몇 권 出刊되었다. 와그너, 미첼과 함께 최근에는 와이너가 두 권의 冊을 통해 在日朝鮮人史를 整理했다.¹⁶⁾ 와이너는 征韓論으로부터 戰前까지의 在日朝鮮人史를 通史的으로 敘述하고 있는데, 日本 中心的 視點에서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露呈하고 있다. 1) 朝鮮人 勞動者의 組織化가 日本人 勞動運動家와의 連帶 속에서 進展되었다고 強調한 內容, 2)

在日本朝鮮勞動總同盟의 成立을 日本 勞動運動 主流로부터 支援을 받을 수 없었던 事實에서 찾는 內容, 3) 在日朝鮮人の 낮은 定住性이 日本人과의 連帶를 沮害했다는 觀點 等이다.17)

3) 韓國에서의 研究 現況(1970年代부터 1990年代 初까지)

韓國에서의 在日朝鮮人에 대한 研究는 1970年代 以後 移民史, 生活實態를 中心으로 一定하게 成果가 나오기 시작했다.18) 金大商, 李光奎와 高承濟, 玄圭煥 等은 主로 經濟史와 社會史的인 接近을 하고 있어, 植民地時代의 運動에 대한 言及은 거의 없거나 疏略한 水準에 머물고 있다. 한편 金相賢과 閔寬植은 在日 同胞의 現在的 問題에서 出發하여, 別途의 研究成果를 냈다. 田駿의 경우는 警察資料를 援用한 羅列式 敘述을 통해 朝總聯에 對한 偏向된 研究를 遂行했다.

김상현, 『在日韓國人』, 단국학술연구원, 1969.

田駿, 『朝總聯研究』, 고대아세아연구소, 1972.

김대상, 『일제하 강제인력수탈사』, 정음사, 1975.

이광규, 『在日韓國人』, 일조각, 1983.

고승제, 재일한국노동자 이민의 사회사적 분석』, 『학술원논문집 인문사회과학』, 1973.

1980年代 國內政勢의 變化와 함께 植民地時代史의 地平이 넓어져서, 1970年代보다는 多樣한 主題들이 研究되기 시작했다. 研究의 傾向性을 크게 나누어 보면, 1970年代의 延長線上에선 移民史, 生活實態에 關한 研究를 우선 舉論할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勞動者의 實態에 對한 研究가 遂行되었다. 그리고 渡日 留學生 問題가 本格的으로 韓國史 研究者들에 의해 研究되기 시작하여, 以後 金淇周에 의해 單行本이 發刊되었다. 이와 함께 在日朝鮮人 運動史에 대한 個別 論文이 呂煥妍, 鄭鎮星 등의 研究로 나왔다.

박영석, 「日本제국주의하의 한국인 日本이동에 대하여」, 『건국대 인문과학논총』(14), 1982.

박정의, 「日本 식민지시대의 在日한국인여공」, 『원광대 논문집』(17), 1983.

이광규, 「在日교포이주사」, 『김철준박사화갑기념논총』, 1982.

신재홍, 「관동대지진과 한국인 대학살」, 『사학연구』(38), 1984.

허수열, 「조선인노동력의 강제동원의 실태」, 『일제의 한국식민통치』, 정음사, 1985.

정진성, 「계급으로서의 민족공동체 - 일제시기의 재일조선인사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엮음, 『현대자본주의와 공동체이론』, 한길사, 1989.

김의환, 「일제하 在日동포사회의 분석연구」, 『국사관논총』(2), 1989.

정진성, 「1920년대의 조선인광부 사용(使用) 상황 및 사용경비(經費)-일본 치쿠호지방의 미쓰비시탄광을 중심으로-」, 주종환 회갑기념논문집간행회 편, 『한국자본주의론』, 한울, 1989.

김윤식, 「일진회의 派日유학생」, 『문학사상』, 1981.

최덕수, 「한말 유학생 단체연구(1)」, 『공주사대논문집』, 1983.

최덕수, 「한말 일본유학생의 대외인식연구(1905-1910)」, 『공주사대논문집』, 1984.

강대민, 「한말 일본유학생들의 애국계몽사상」, 『부산산업대논문집』, 1986.

한시준, 「국권회복운동기 일본유학생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2), 1988.

김기주, 「구한말 재일유학생의 사회계몽사상」, 『호남대사회교육』, 1990.

金洪周, 『韓末 在日韓國留學生의 民族運動』, 느티나무, 1993.

여환연, 「1920年代在日韓人の 民族運動 - 협동전선을 중심으로」, 이화여대석사논문, 1982.

정진성, 「일제하 在日朝鮮人勞動者들의 조직운동」, 『한국사회학연구』 8,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1986.

1990年代 韓國內에서는 本格的인 植民地時代 在日朝鮮人 問題와 在日朝鮮人 運動에 對해 研究가 展開되었다. 여기에는 研究의 多樣性이 社會的으로 要求되는 가운데, 1980年代의 蓄積된 植民地時代史에 對한 研究가 基盤이 되었다. 重要한 研究의 흐름은 勞動者 狀態에 關한 生活史的인 研究(A), 本格的인 運動史에 對한 研究(B), 强制連行期에 對한 研究(C)로 나눌 수 있다.

(A)

서현주, 「1920년대 日帝조선인 노동자계급의 형성」, 『한국학보』 (63), 1990.

김민영, 「일제의 조선인노동력 수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김민영, 『일제의 조선인노동력 수탈 연구』, 한울아카데미, 1995.).

정혜경, 「식민지시대 在大阪 한인노동자의 생활상 - 192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정혜경, 「1920년대 大阪 한인노동자의 생활상」, 『청계사학』 (8), 1991.

김성례·강정숙, 「일제의 노동력수탈에 관한 연구」, 『청산하지 못한 일제시기의 문제』 (광복50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문), 1995.

(B)

정혜경, 「식민지시대 麻生 한인탄광노동쟁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논문집』 (7), 1992.

정혜경, 「1910-1920년대 東京한인노동단체」, 『한국근현대사연구』 (1), 한울, 1994.

김인덕, 「1920년대말 제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의 해체논의에 대한 검토」, 『부춘신연철교수정년퇴임기념사학논총』, 일월서각, 1995.

김인덕, 「학우회의 조직과 활동」, 『국사관논총』 (66), 1995.

정혜경, 「大阪한인단체의 성격(1914 - 1922년)」, 『한일관계사연구』 (4), 1995.

(C)

방선주, 「미국자료에 나타난 한인 ‘종군위안부’ 의 고찰」, 『국사관논총』 (37), 1992.

이효재, 「한일관계 정상화와 정신대 문제」, 『기독교 사상』 (8월호), 1992.

윤정옥, 「일본군 ‘위안부’ 의 실태」, 『한일합동연구회 발표문』, 1993.

이상화, 「군위안부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1993.

정진성, 「일본군 ‘위안부’ 정책의 형성과 변화」, 『한일합동연구회 발표문』, 1993.

여순주, 「일제말기 조선인 여자근로정신대에 관한 실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논문, 1994.

정진성, 「일본군 ‘위안부’ 정책의 본질」, 『한말 일제하의 사회사상과 사회운동』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42)), 문학과 지성사, 1994.

신영숙, 「군위안부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청산하지 못한 일제시기의 문제』 (광복50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문), 1995.

정진성·여순주, 「여자근로정신대의 실상」, 『청산하지 못한 일제시기의 문제』 (광복50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문), 1995.

勞働者階級の 狀態에 關한 徐賢珠의 研究는, 政治經濟學的인 視

覺에 선 研究로 韓國內의 1980年代 植民地時代 經濟史 研究의 傾向性을 反映하고 있다. 強制連行期에 對한 研究는 軍慰安婦에 焦點이 맞추어져 있어 主題의 多樣化가 要求되는데, 1995·96年 韓國精神文化研究院의 海外遺骸調査에 關한 報告書는 在日朝鮮人 強制連行에 對한 韓國內 첫 實態調査 報告로, 象徵的인 意味가 있다.19) 이와 함께 解放 以後 在日朝鮮人史에 對한 研究로 崔永鎬의 東京大 博士學位論文이 單行本으로 나와 國內의 解放 以後 時期 研究者와 在日朝鮮人 研究者들에게 認識의 폭을 넓히는데 一助하고 있다.20)

1980年代 以後 國內에서의 植民地時代 在日朝鮮人運動史에 對한 研究는 아직도 日淺하여 全面的인 言及은 困難하나, 日本偏向的인 在日朝鮮人 研究를 克服함이 資料의 限界를 突破해 내는 것과 함께 一旦 解決해 내야 할 課題이다.

3. 最近 韓國에서의 研究 現況(1996年 以後)

1) 主題別

韓國內의 研究는 運動史 및 政策史의인 論文이 主從를 이루고, 移民史, 社會史, 生活史의인 글도 간혹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文學, 社會學, 美術 쪽에서도 最近에 研究成果가 있다. 本稿에서는 主로 歷史學쪽의 運動史와 關聯한 在日朝鮮人史 研究 現況을 整理해 보겠다.

일찍이 朝鮮共產黨 및 思想團體, 黨再建運動에 對한 研究는 金俊燁, 金昌順, 李起夏, 徐大肅, 高峻石, 朴慶植, 田駿 등이 韓國 共產主義運動史를 整理하면서 進行했다. 특히 朴慶植의 研究가 內容을 豊富하게 하고 있다. 나머지는 主로 日本 警察文書를 整理하는 水準이었다. 그리고 失敗한 革命을 敍述하고, 그 속에서 在日朝鮮人의 運動을 把握했다. 筆者는 博士學位 論文을 통해, 1920年代 在日朝鮮人 共產主義運動을 다루었다. 以後에는 共產主義運動만 다룬 注目되는 글은 없는 것 같다.

아나키즘系列에 대해서는 金明燮, 金廣烈, 李浩龍, 吳障煥 등의 연구가 있다.

勞動運動에 대해서는 勞動運動 關聯 概說書에서 言及하다가, 鄭鎮星, 鄭惠瓊, 金仁德 等に 의해 個別 主題에 對해 研究가 進行되고 있다. 그리고 最近에 筆者의 人物研究가 單行本으로 出刊되었다.²¹⁾

青年·學生運動에 對해서는 在日朝鮮人運動史에 대한 概說書와 青年·學生運動에 對한 研究書 속에서 部分的으로 確認할 수 있다. 2·8獨立運動과 3·1運動 時期의 學生들의 움직임을 學生運動史 속에서 鄭世鉉, 金成植 등이 整理했고, 最近 筆者도 個別 主題로 原稿를 發表했다. 그리고 韓末 以來 留學生運動의 次元에서는 金洪周, 崔德壽, 韓詩俊, 表永洙, 朴贊勝 等の 研究가 있다. 學友會에 對해서는 金太基, 金仁德, 鄭惠瓊 等이 組織과 活動의 大綱을 整理하여, 在日朝鮮人 青年·學生運動에 대한 研究를 提高해 내고 있다.²²⁾

民族主義系列의 運動도 整理되고 있는데, 아직 그리 많은 成果는 없다. 단 基督教, 天道教, 佛教 留學生의 움직임은 研究 成果가 나왔다.

在日朝鮮人 運動史에서 가장 큰 論爭거리는 在日朝鮮人 運動의 解體問題이다. 筆者는 「1920年代末 在日朝鮮人 民族解放運動의 解體論議에 대한 檢討」에서 解體論議의 過程과 解體宣言의 問題點을 네 가지로 整理했다. 1) 當時 國際共產主義運動의 本領인 코민테른은 스탈린적 偏向에 물들어 있어 一國一黨主義라는 戰術을 잘못 採擇했고, 그것은 코민테른 至上主義에 빠진 朝鮮과 日本共產主義運動 勢力에게는 實踐해야 할 不文律이었다. 2) 解體論議의 過程이 民主主義의 方式과는 無關한 下向式 方式으로 一方的으로 進行되어, 結局 地域運動을 無視하게 되었다. 3) 解體論議의 過程이 非科學的·反運動的이었다. 緣故主義와 活動家들의 感情에 치우쳐서 大勢에 無批判的으로 盲從하여 解散에 同意했다. 그리고 이것은 解體論議의 內容에 있어 全面的인 不定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4)

프로핀테른의 指示에 의해 全協이 主導한 一方的인 解體論議와 解散過程은 在日朝鮮人の 持續的인 鬭爭을 上程하지 못해, 終局的으로 運動의 勢를 縮小시켰다.

최근에는 韓國內에서 紀念日鬭爭과 生活史研究, 地域研究, 濟州出身의 活動에 注目하는 새로운 論文들이 나오고 있다. 筆者는 紀念日鬭爭에 대해 學習하면서, 향후 보다 많은 研究가 必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日本地域의 朝鮮人에 대한 研究에서는 親日勢力에 대한 研究가 切實하다. 이미 日本內에서는 成果가 나왔는데,²³⁾ 國內에서는 金斗鎔의 親日論을 살펴 본 程度이다. 親日派는 1876년부터 1945年 時期 社會 各 分野에서 自身の 任務를 機能的으로 遂行하면서, 總體的으로 民族의 抹殺에 能動的으로 參與했던 사람들로²⁴⁾ 이들 親日派는 朝鮮의 反日鬭爭이 朝鮮人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있었던 것처럼, 國內外를 莫論하고 日帝權力을 위해 忠誠을 다했다. 日本에서는 相愛會, 協和會, 興生會, 一心會 등이 組織되어 日本帝國을 위해 邁進했고, 그 組織과 活動의 內容을 解放 後에 金斗鎔이 整理했다.

前述했듯이 強制連行에 대한 研究는 일찍이 朴慶植에 의해 研究의 土臺가 構築되기 시작하여, 많은 研究者가 參與해 왔다. 韓國에서의 強制連行에 對한 研究는 金旻榮에 의해 主導되었다. 그는 日本 現地 調査에 基礎해 強制連行에 對해 研究했는데, 勞務動員에 注目하고 있다.²⁵⁾ 最近에는 日本內의 先行 研究에 基礎하여, 支配政策, 實態問題, 地域의 個別事例 等に 對해서도 조금씩 研究가 進行되고 있으며, 研究者가 國會의 強制連行 被害 關聯 立法活動과도 緊密한 連帶를 形成하고 있다.

解放 以後 在日朝鮮人 問題와 關聯해서는 歸還, 朝總聯, 北送에 對한 글이 主從을 이루고 있다. 物論 文學이나 社會學, 政治學, 人類學 쪽에서의 現在的 問題에 對한 테마도 成果가 間歇的이지만 나오고 있다. 특히 李宗勳, 權肅寅, 韓敬九 등의 研究가 注目된다.

2) 研究者別

韓國에서 1990年代에 들어서는 在日朝鮮人에 對한 博士學位 論文들이 나왔다. 主要한 것을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鄭印燮, 外國인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 정주의국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李允煥, 헌법상 외국인 선거권에 관한 연구 : 일본국 헌법상 재일한국인문제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劉三悅, 북한의 재일교포정책과 조총련,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金仁德, 在日朝鮮人 민족해방운동연구 : 1925-31년 시기 사회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金大成, 재일한국인의 민족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이한창, 재일 교포문학의 작품성향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兪淑子, 1945년 이후 재일한국인 소설에 나타난 민족적 정체성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鄭惠瓊, 일제하 재일한국인 민족운동의 연구 : 大阪지방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秦熙官, 조총련 연구 : 역사와 성격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김명섭, 재일 한인 아나키즘운동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김정자, 재일 한국인 일세의 한국어·일본어 혼용 실태 연구 : 대판 지역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이러한 研究成果와 함께 韓國內 研究成果를 舉論할 때, 最高의 共同研究의 成果物은 朴慶植선생님 追悼論文集이다.²⁶⁾ 이 冊은 國內와 日本의 研究者가 모여서, 처음으로 만든 共同作品으로, 韓國

內 在日朝鮮人史 研究에서 最高의 成果이다. 이후 國內 研究者가 中心이 되어, 前述한 韓日民族問題學會가 發足하게 된다.

韓國內的 民族運動 關聯 研究를 보면, 前述했듯이 在日朝鮮人(運動)에 關해서는 研究가 金相賢, 閔寬植, 田駿 等에 의해 研究가 進行된 것을 들 수 있다.²⁷⁾ 田駿은 앞에서 간단히 舉論했듯이, 反共主義的 視覺에서 民族主義運動에 焦點을 맞추어, 既存의 日本 警察資料를 時期·主題別로 그대로 引用하여 在日朝鮮人 歷史를 記述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金俊燁·金昌順과 徐大肅은 日本警察이 남긴 調書와 一部の 關聯者 인터뷰를 派閥鬪爭의 視覺을 見地하면서, 그대로 옮겨 놓고 있다. 結局 在日朝鮮人 民族解放運動을 派閥運動, 分散的 運動, 地域運動 次元에서만 整理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金仁德은 「在日朝鮮人 民族解放運動 研究-1925-31年 時期 社會主義運動을 中心으로-」(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請求論文, 1996.)에서 1925년부터 31年 時期의 日本地域 朝鮮人의 運動을 社會主義系列의 組織과 活動을 中心으로 整理했다. 이 글은 時期의 制限性과 社會主義運動이 中心이라서 全體 在日朝鮮人史를 그리지 못하고 있다.

鄭惠瓊은 大阪地域 地域研究로 博士學位를 取得했다.²⁸⁾ 그는 博士學位 論文에서 日帝時代 大阪地域의 運動을 總體的으로 살펴보고 했는데, 먼저 大阪地域 朝鮮人 社會의 形成과 生活相을 糾明했고, 同時에 1920·30年代 大阪地域 朝鮮人 民族運動을 分析했다. 특히 1920年代의 運動을 敍述할 때는 大阪 朝鮮人 아나키즘運動 다른 民族運動勢力과의 連帶의 軸 속에서 살펴보고, 1930年代의 運動은 소규모 地域團體나 勞動組合, 消費組合 等を 中心으로 敍述했다. 最近에 冊으로 發刊되었는데, 先行 研究와의 差別性이 問題이다.

金明燮은 아나키즘 研究로 博士學位를 取得했다. 주로 1920年代 日本地域의 朝鮮人 아나키즘運動을 다루고 있다. 主要한 內容은 受用方式, 運動의 樣態, 影響 等이다. 특히 아나키즘運動을 民族

運動의 한 方式으로 자리매김하고자 努力하고 있다. 이 글은 既存의 研究를 整理하는 方式을 取하고 있으며, 在日朝鮮人の 普遍的인 運動을 土臺로 한 것 같지는 않다.

이와 함께 日本에서 博士學位를 取得한 以後 國內로 들어 온 研究者들은 계속에서 關聯 論文을 發表하고 있는데, 金廣烈, 金基旺, 南基正, 洪仁淑, 許光茂 등의 글²⁹⁾이 있다.

한편 在日朝鮮人 關聯 國內의 主要 研究 書籍은 다음과 같다.

1. 著書

- 在日韓人法的地位問題(에關한說明書)/外務部/서울:外務部, 1958.
在日韓國人:僑胞80年史/金相賢 著/서울:語文閣, 1969.
재일 한국인 교육의 문제와 전망:세미나 보고서/유네스코 한국위원회/서울: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81.
在日韓國人:生活實態를 中心으로/李光奎 著/서울:一潮閣, 1983.
在日韓國人:在日동포 100年史/金相賢 著/서울:한민족, 1988.
在日本韓國人:왜 日本이름을 쓰고 살아야 하나/閔寬植 著/서울:重山育英會 附設 亞細亞政策研究院, 1990.
한·일 기독교 관련사/문병원 저/서울:성광문화사, 1993.
재일한국인과 조국광복:해방직후의 본국귀환과 민족단체활동/최영호 저/서울:글모인, 1995.
일제의 조선인노동력 수탈 연구/김민영 저/서울:한울아카데미, 1995.
식민지시대 재일조선인운동 연구/김인덕 저/서울:국학자료원, 1996.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강덕상 외저/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日帝時代 在日朝鮮人民族運動研究:오사카(大阪)를 중심으로/鄭惠瓊 著/서울:國學資料院, 2001.

- 한국은 조국 일본은 모국/ 조맹수 저/ 서울 : 높은오름, 1995.
 일제 강점기 재일한국인의 문학활동과 문학의식 연구/ 양왕용
 외저/ 부산 : 부산대학교출판부, 1998.
 일제 강점기 재일 한국인의 연극운동 / 민병욱 저/ 서울 : 연극
 과인간, 2000.
 재일한국인 문학연구/ 兪淑子 著/ 서울 : 月印, 2000.
 재일 한국인 문학/ 홍기삼 편/ 서울 : 솔출판사, 2001.

2. 譯書

- 韓國인이 日本人에게 : 分斷民族의 悲願/ 韓明錫 著; 金景來 譯/
 서울 : 東方圖書, 1978.
 죽음의 12계단 : 日本속의 韓國人/ 金相秀 著/ 서울 : 韓振出版
 社, 1980.
 아버지 코리아/ 郭早苗 著; 金基實 譯/ 서울 : 열린책들, 1987.
 재일한국인 지문거부운동 : 법정 진술 모음/ 재일대한기독교회
 지문거부실행위원회 편; 이종원 역/ 서울 : 정암사, 1987.
 두개의 이름 : 교 노부코와 강신자/ 姜信子 著; 송일준 譯/ 서
 울 : 계양출판사, 1991.
 單一民族 社會의 神話를 넘어서 : 재일 한국·조선인과 출입국관
 리 체제/ 오누마 야스아끼 저; 朴椿浩,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
 研究所 共編; 金顯球, 魯在化 共譯/ 서울 : 高麗大學校出版部,
 1993.
 재일조선인운동 : 1945~1965 / 梶村秀樹 저; 김인덕 역/ 서울 :
 현음사, 1994.
 성공한 재일한국인 100인 : 청소년을 위한 좌우명과 생활신조/
 츠루오카 마사오 編; 禹守根 譯/ 서울 : 이희문화사, 1997.
 재일조선인 교육의 역사/ 오자와 유사쿠 저; 이충호 역/ 서울 :
 해안, 1999.
 재일 한국·조선인 : 역사와 전망/ 강재인, 김동훈 공저; 하우

봉, 홍성덕 공역/ 서울: 소화, 2000.

김석범 『화산도』 읽기: 제주4·3항쟁과 재일한국인 문학/ 나카무라 후쿠지 저/ 서울: 삼인, 2001.

민족적 주체성: 在日朝鮮人 一世의 貴重한 證言集/ 玄璣澤 著/ 서울: 민중출판사, 2001.

위에서 보듯이 주로 現在的 問題와 文學, 演劇, 民族運動 等과 關聯한 글이 主를 이루고 있다. 특히 翻譯書는 文學에 偏重되었다. 30) 위의 冊 가운데 『在日韓國人文學』(東國大日本學研究所日本學叢書 2)는 在日同胞 1세대 作家 金達壽·金市宗·張赫宙·金史良, 2세대 作家 金鶴泳·李恢成, 3세대 作家 李良枝·柳美理·玄月等 在日同胞 作家들을 世代別로 나누어 研究했다. 이러한 在日朝鮮人 文學에 대해서는 李漢昌의 研究가 注目된다. 그는 先行研究에 基礎하여 在日朝鮮人 文學을 5時期로 나누었다. 1) 草創期(1881-1920年代 初盤), 2) 抵抗과 轉向 文學期(1920年代-1945), 3) 民族現實 文學期(1945-1960年代 中盤), 4) 社會 告發 文學期(1960年代 後盤-1970年代 末), 5) 主體性 探索 文學期(1980年代-現在). 31)

한편 全基浩는 勞動者 狀態와 組織運動, 32) 金英順은 解放 以後 日本政府의 政策³³⁾을 主로 다루었다. 특이한 境遇로 民間信仰 問題, 34) 在日朝鮮人 詩, 35) 濟州道와 在日朝鮮人 問題³⁶⁾를 다루기도 했다. 濟州道와 在日朝鮮人 問題는 아직도 現在性을 띠고 있으며, 濟州道內에서도 서서히 關心이 高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初期 留學生의 運動試습을 다룬 研究도 있다. 37)

4. 맺음말-研究의 限界와 展望-

이상과 같이 韓國內 在日朝鮮人史 研究 動向을 살펴보았다. 筆者는 主로 植民地時代의 運動 및 社會史에 注目했다. 이와 함께 文學, 美術, 38) 音樂 等과 解放 以後의 各種 在日朝鮮人 問題에도 關心이 必要하다고 생각해 보았다.

韓國에서의 在日朝鮮人史 研究은 日本内の 研究 成果에 依支해서 出發했다. 따라서 아직도 絶對量의 資料와 研究者는 日本地域을 凌駕할 수 없다. 단 日本地域의 研究가 서서히 색깔이 退色되고, 日本社會史 속으로 編入되어 가는 모습과는 달리 獨自的인 視點을 갖고, 韓國近現代史 속에서 普遍的인 틀을 그리려는 시도가 생겨나는 것은 鼓舞的이다. 특히 注目되는 것은 韓國史的 視覺에서 새로운 研究 主題들이 開發되고, 밀바닥 資料가 蒐集되어 가는 點이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在日朝鮮人史는 研究되어야 할 것 같다.

具體的인 研究 흐름을 보면, 在日朝鮮人 問題는 草創期의 政治學的인 關心에서 서서히 大衆化되면서, 社會學, 經濟學, 歷史學, 文學, 國際關係學 等の 專攻者들이 注目했다. 1960-80年代는 法的 問題, 政治的 問題에 關心이 集中되었고, 1980-90年代는 文學, 運動史, 社會史的 研究가 많아졌다. 最近에는 日本内の 狀況을 反映하여 參政權 問題가 많이 舉論되고도 있다.

이러한 研究의 傾向을 研究者를 中心으로 크게 世代를 區分해 보면, 1世代는 閔寬植, 金相賢, 田峻, 李光奎, 金俊燁, 金昌順, 鄭鎮星, 李漢昌, 全基浩 等이고, 第2世代는 崔永鎬, 金廣烈, 洪仁淑, 鄭惠瓊, 金明燮, 金旻榮, 許光茂, 金太基, 鄭大成, 兪淑子, 金仁德 等이다. 最近에는 日本에서 博士學位를 받고, 國內에서 研究 活動을 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純粹하게 國內에서 在日朝鮮人問題를 研究하는 경우도 있다.

最近 韓國에서는 在日朝鮮人 問題와 關聯하여, 在外同胞財團, 海外僑胞問題研究所, 在外韓人學會, 韓日民族問題學會 等の 團體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團體는 機關誌로 『海外同胞』, 『僑胞政策資料』, 『在外韓人研究』, 『韓日民族問題研究』 等を 發刊하고 있다.

筆者는 先行 研究에서 在日朝鮮人史 研究에 대해 몇 가지 問題點을 指摘했다.³⁹⁾ 向後에는 다음과 같은 點에도 注目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1) 韓國內의 研究 振作을 위해서는 學制間의 研究가 切實하다. 國內의 研究者가 絶대 不足함을 勘案한다면 研究者의 協力 및 交流가 必要한데, 研究 題마의 共同 選定이 試圖되어야 한다. 특히 強制連行史를 研究할 때는 專攻을 不問한, 總體的인 研究가 반드시 進行되어야 할 것이다.

2) 多樣한 主題의 選定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思想的인 接近과 國內 研究에 土臺한 植民地時代史 속의 整理가 切實하다. 이와 함께 韓國內 研究의 特性上 國內 運動과 關聯된 研究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3) 日本內 研究成果와 國內 研究成果의 結合이 必要하다. 單純한 研究成果의 把握이 아니라, 內容 있는 指摘과 評價가 있어야 한다.

4) 強制連行 關聯 인터뷰와 各種 資料의 體系化가 切實하다. 특히 國內 記錄의 整理는 韓國 研究者의 몫이다.

1) 2002년 3월 1일 발간한 『중학교 국사』에는 다음의 내용이 실려 있다.

“일제는 한국인을 강제 징용으로 끌고 가 광산이나 공장에서 고통스러운 노동을 강요하였고, 지원병 제도와 학병제, 징병제를 실시하여 많은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다.

일제는 여성들도 근로 보국대, 여자 근로 정신대 등의 이름으로 끌고 가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더욱이 많은 수의 여성을 강제로 동원하여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아시아 각 지역으로 보내 군대 위안부로 만들어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게 하였다. <도움글> 군대 위안부 : 군대 위안부란 한국, 중국, 필리핀 등 일본의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가 성 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다. 1930년대 초부터 자행된 이러한 만행은 1945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262쪽.)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한국인 유학생들은 이렇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독립 운동의 기호로 생각하여, 일본 도쿄에서 조선 청년 독립단을 조직하고,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2·8 독립선언이다.(1919. 2. 8)” (265-266쪽.)

“김구가 이끈 한인 애국단의 단원인 이봉창은 1932년에 일본 도쿄에

서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일본 국왕을 처단하기 위해 국왕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277쪽.)

- 2) 고등학교 교과서(2002년 판)의 재일 조선인 관련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일제는 강제 징용으로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징병제도를 실시하여 수많은 조선의 젊은이들을 전장의 총알받이로 내모는 한편, 젊은 여성들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여 군수 공장 등지에서 혹사시켰으며, 그 중 일부는 전선으로 끌고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는 만행을 저질렀다. 패전 후에는 류큐나 중국 하이난 섬 등지에서 한국인을 대량 학살하기도 하였다.” (343쪽.)

“국권을 강탈당한 후 거족적인 독립 운동을 준비하던 민족 지도자들은 민족 자결주의와 2·8독립 선언에 고무되어...(344쪽.)

2·8독립선언 : 일본에 유학 중이던 학생들이 조선 청년 독립단을 조직하고 도쿄에서 2월 8일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발표하고, 시위를 벌였다.” (344쪽.)

“국내에서 활동하던 의병과 애국지사들은 중국, 연해주, 미국, 일본 등으로 망명하여 1910년대부터 본격적인 국외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371쪽.)

“일본에서는 최팔용이 중심이 되어 조선 청년 독립단을 구성하고 2·8독립선언을 발표하여 3·1운동의 도화선을 제공하였다.” (372쪽.)

- 3) 1996年 高等學校 國史(下)는 2·8獨立宣言, 日本의 3·1運動, 日本移住 同胞, 關東大虐殺을 舉論했다.
- 4) 韓日民族問題學會이다. 학회에 관한 것은 홈페이지를 참조.
- 5) 김인덕, 「일본지역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사론』 (26), 1996, 外村大, 「在日朝鮮人史研究の現狀と課題についての一考察-戰前期を對象とする研究を中心に-」, 『在日朝鮮人史研究』 (25), 1995. 9.
- 6) 日本 내 당사자의 글과 日本 내 주요 잡지의 재일조선인운동 관련 기록은 다음의 자료집으로 일부 공간되었다. 金仁德, 『植民地時代 民族運動史資料集-日本地域編-』 (1-7), 國學資料院, 1997.
- 7) 朴慶植, 『在日朝鮮人運動史-8·15解放前-』, 三一書房, 1979, 岩村登志夫, 『在日朝鮮人と日本労働者階級』, 校倉書房, 1972.
- 8) 兵庫朝鮮關係研究會, 『兵庫と朝鮮人』, ツツジ印刷, 1985, 『在日朝鮮人90年の軌跡-續兵庫と朝鮮人-』, 神戸學生青年センター-出版部, 1993, 川瀬俊治, 『奈良・在日朝鮮人史』, 奈良・在日朝鮮人の教育を考える會, 1985, 内藤正中, 『日本海地域の在日朝鮮人-在日朝鮮人の地域研究-』, 多賀出版, 1989.
- 9) 飛田雄一, 金英達 編, 『1994 朝鮮人・中國人強制連行・強制勞動資料

- 集』, 1995.
- 10) 外村大, 「在日朝鮮人史研究の現状と課題についての一考察-戦前期を對象とする研究を中心に-」, 『在日朝鮮人史研究』(25), 1995. 9.
 - 11) 이러한 관점은 梶村秀樹, 樋口雄一과 동일선상에 서 있다.
 - 12) 許光茂, 「戦前日本の貧困者救済と在日朝鮮人-方面委員制度を中心に-」, 一橋大學博士論文, 2001.
 - 13) 金太基, 「前後在日朝鮮人問題の基源」, 一橋大學博士論文, 1996.
 - 14) 南基正, 「朝鮮戦争と日本-基地國家におけるの戦争と平和-」, 東京大學博士論文, 2000.
 - 15) 金基旺 「在日留學生の民族解放運動に關するの研究」, 神戸大學 博士論文, 1999.
 - 16) Michael Weiner, *The Origins of the Korean Community in Japan 1910-1923*,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1989; *Race and Migration in Imperial Japan*, London, Routledge, 1994.
 - 17) 용어와 인명을 잘못 읽거나, 동일한 단체, 사건에 대한 중복 설명이 되풀이되고 있다. 松田利彦의 서평도 있다.
 - 18) 본 절에서는 1995년 이전까지의 대표적인 논문만 언급한다. 1996년 이후 성과는 한국내 주요 개별연구자의 성과에서 정리한다.
 - 19) 『해외 희생자 유해 현황 조사사업 보고서-일제 시기 해외 한인 희생자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96.
 - 20) 최영호, 『재일한국인과 조국광복』, 글모인, 1995.
 - 21) 김인덕, 『일제시대 민족해방운동가 연구』, 국학자료원, 2002. 필자는 여기에서 金天海, 金斗鎔, 鄭南局, 金容珪, 金復鎭, 車今奉 등의 활동을 정리했다.
 - 22) 김인덕, 「학우회의 조직과 활동」, 『국사관논총』(66), 국사편찬위원회, 1995.
 - 23) 金斗鎔, 『日本における反朝鮮民族運動史』, 郷土書房, 1947, マンフレッド・リングホ-ファー, 「相愛會-朝鮮人同化團體の歩み-」, 『在日朝鮮人史研究』(9), 1981. 12, 樋口雄一, 『協和會-戦時下朝鮮人統制組織の研究-』, 社會評論社, 1986, 松田利彦, 「朴春琴論-その選舉運動と議會活動を中心として-」, 『在日朝鮮人史研究』(18), 1988. 10, 宗田千繪, 「神奈川縣における協和事業と在日朝鮮人生活史」, 『海峽』(15-17), 1990. 12-1995. 2.
 - 24) 김봉우, 「친일파의 범주와 형태」, 『광복50주년 기념 일제잔재와 친일파 문제에 관한 학술회의』(1995.), 96쪽.
 - 25) 김민영, 『일제의 조선인노동력 수탈 연구』, 한울아카데미, 1995. 강제연행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의 글을 참조. 「일본지역 강제연행 연구-연구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민족운동사연구』(17), 1997.

- 26) 강덕상 외저,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27) 김상현, 『재일한국인』, 단국학술연구원, 1969, 민관식, 『재일조선인의 현상과 미래』, 고대아세아문제연구원.
- 28) 정혜경, 「일제하 재일한국인 민족운동 연구-대판지방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29) 김광열, 「大正期 일본의 사회사상과 재일한인」, 『日本學報』 1999. 6, 「戰前期 일본재류조선인의 정주화 양상에 관한 거시적 고찰」, 『일본역사연구』 2000. 2, 「1920-30년대 조선인 渡日의 요인 -취업환경을 중심으로-」, 『韓日民族問題研究』 2001. 2, 남기정, 「한국전쟁과 재일한국-조선인 민족운동」, 『민족연구』, 2000. 9, 홍인숙, 「제2차 세계대전 직후, GHQ의 재일조선인정책」, 『韓日民族問題研究』(創刊號), 2001, 허광무, 「1920-30년대 일본의 사회정책-일본 거주 조선인에 대한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韓日民族問題研究』(2), 2002,
- 30) 이와 함께 다른 연구서 및 번역서는 각종 참고문헌을 참조할 것.
- 31) 이한창, 「재일교포문학연구」, 『외국문학』(1994. 겨울.), 참조.
- 32) 全基浩, 「在日朝鮮人 工場勞動者の 勞動爭議 事例分析: 1930年代 前期를 중심으로」, 『慶熙大産研論叢』(23) 1998. 12. 全基浩, 「1930年代 在日朝鮮人勞動者の 勞動爭議」, 『慶熙大經濟研究』(14), 1998. 12.
- 33) 김영순, 「재일조선인의 「외국인등록령」 적용과 「강제송환」: 1946-1947년도 일본정부의 재일 조선인 정책을 중심으로」, 『건강대인문논총』(2) 1997. 12.
- 34) 허점숙, 「재일한국인의 무속신앙: 무속과 불교의 습합을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제40집-文學·日本學 篇), 2002. 2.
- 35) 박경수, 「일제 강점기 재일 한국인의 일어시에 나타난 민족적 정체성」, 우리말글학회, 『우리말글』(제21집), 2001. 8, 박경수, 「1930년대 재일 한국인의 일어시 연구」, 『釜山外大語文論集』(16), 2001. 2.
- 36) 유철인, 「재일 제주인과 제주도」, 『제주대동아시아연구논총』(9), 1998. 12. 이밖에도 여러 선행연구가 제주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 37) 손 환·김승재, 「구한말기에 있어서 재일 한국인 유학생 단체의 본국에의 원정 시험에 관한 연구: 대한 흥학회를 중심으로」, 『江原大體育科學研究所論文集』(21), 1997. 7.
- 38) 재일 프롤레타리아 미술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글이 주목된다. 喜多惠美子, 「韓·日 프롤레타리아 美術運動의 交流에 관하여」, 『美術史論壇』(12), 2001. 상반기.
- 39) 1) 독일의 내용을 파악할 때 독일계층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가 아쉽다. 2) 각 단체, 조직 주체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는데 많은 한

계를 노정하고 있다. 3) 사회사적인 연구와 운동사적인 연구가 분절적으로 되는 경향성이 존재하고 있다. 4) 다양한 운동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5) 객관적 사실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6) 지속적인 자료의 발굴이 절실하다. 여기에서는 일본 현지에서의 사료의 발굴과 함께 조선 및 미국의 대학도서관과 문서보관소에 산재해 있는 자료를 찾아내는 일이 요청된다.(김인덕, 「일본지역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사론』(26), 1996, 김인덕, 「일본지역 민족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 『한국민족운동사 연구』(23), 1999.)

要約

韓国での在日朝鮮人史研究はたいへん厳しい状況のなかで進められている。具体的な研究の流れを概観すると、在日朝鮮人の問題は草創期の政治学的な関心から、次第に大衆化されつつ、社会学、経済学、歴史学、文学、国際関係学的側面から注目されている。とくに最近では第二世代の研究者たちによって多くの成果が出ており、質的飛躍の準備段階に入っている。しかし主に歴史学・文学的な研究が主流をなし、総合的な接近には限界がある。

今後は次のような点に注目して研究を遂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1) 韓国内の研究発展のための学際的研究。2) 多様な研究テーマの選定。3) 韓国と日本内研究者との研究成果の有機的結合。4) 各種資料の体系化。